

■ 전진농업 현장 9 강운토끼농장 고용주 ■

발표사로 개발로 최고급 육질 생산



서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던 고용주(53.사진) 강운토끼농장(이동면 노곡리 1432-11) 대표가 이곳에 토끼농장을 시작하게 된 것은 IMF 이후인 1998년이다.

모토 800두를 포함해 1천500여두의 토끼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고 대표는 사료를 직접 만들어 먹이고 있다. 고 대표가 직접 제작한 사료는 항상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 사료와 차별화가 되고 있다.

항상제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육질이 좋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고 대표의 설명이다. 고 대표가 생산하는 토끼사료는 건조류와 강피류, 엽박류, 미네랄 등을 믹스하여 살균(열)한 다음 발효제를 첨가하여 발표시켜서 토끼에 투여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알팔파, 컴보믹스, 옥수수분, 소맥피, 미강, ATP, 대두박, 갯목, 칼슘, 미네랄 등을 원료로 하여 사료를 만들어 토끼에게 공급한다.

고 대표가 이렇게 하여 사육한 토끼는 육질이 좋아 고기 맛이 다르다고 한다.

고 대표는 전국 토끼고기 생산량의 50%가 경기북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그중에서 60%가 포천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포천시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토끼사육농가 육성에는 물론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들 토끼사육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비수기에는

돼지 도축장을 이용해야 하는데 이곳에서는 토끼고기의 양이 적어 도축을 할 수 없다는 한.

따라서 포천시에 토끼 도축장을 시설하면 30여개 토끼농가에서 생산하는 토끼고기를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토 축장 시설비가 적지 않은 예산이

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뿐이라고 한다.

군남, 학교급식, 마트 납품 등 다양한 판로가 있지만 고기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도축장이 없다.

편안한 구름처럼 살기 위해 토끼농장 이름을 '강운'이라고 지었는데 지구 욕심이 앞서는게 현실이라고 고백하기도 하는 고 대표는 앞으로 토끼농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3년 이내에는 도축장도 마련되어 좋은 고기를 소비자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고 대표는 토끼고기는 저칼로스트를 웰빙음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요리가 개발되어 있다며 국내에서도 도축장 시설을 갖추고 고기를 공급한다면 다양한 요리와 제품이 개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고 대표는 포천시 1년 예산 중 축산분야에 17억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주로 대가축에 집중되고 있는데 토끼농가에도 1년에 2-3억원 규모라도 지원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토끼사육농가의 육성은 물론 웰빙식품으로 토끼고기를 개발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도축장 시설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고 대표를 통해 알 수 있다.

포천시와 경기도는 이같은 토끼사육농가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1432-11번지에서 강운토끼농장을 경영하는 고용주씨는 모토 800두를 포함해 1천500여두의 토끼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토끼생산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고 대표는 토끼고기를 월 2천두는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토끼 1두당 2kg이면 4천kg의 고기를 생산할 수 있다. 도축장이 있다면 토끼고기를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축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것은 현행 법상 토끼 도축은 오리나 닭 도축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고 소나

라 영세도축장에서는 업무를 내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나 경기도 등 정부지원이 절실한 형편이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대책마련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 대표는 특히 토끼고기가 몸이 좋다는 각종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요가 늘고 있으나 이같은 한계로 제때 공급이 이루어

탐방 우리 지역의 사업소 72 대영정밀화학

프라스틱 사출, 금형, 설계제작 전문



대표 유재용

등으로 불량률 제로화를 지향하며 완벽한 제품만을 생산하며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대영정밀화학의 사출사업공정은 \* 원자재 입고(합성수지) \* 원료 자동투입 \* 사출성형 \* 자동취출 \* 포장 \* 출고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직원들은 분야별 자기임무를 성실하게 소화해내고 있으며 고객이 의뢰한 제품과 납기일을 완벽하게 처리하며 자사의 입지를 확고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근무능력을 자랑하는 장기근속자들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모든 공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며 금형설계, 제작과정에서 우수한 기술력이 돋보이고 있다고 한다. 유 대표는 주인의식과 사명감이 강한 직원들의 노고와 열정에 힘입어 요즘 어려운 국내경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영정밀화학은 지난 해 한국산업 안전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산업재해 없이 쾌적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직원들의 사기양양과 동시에 작업능률향상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영정밀화학은 탁월한 기술력과 우수한 제품생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해외유명업체인 BUSMAN사와 LITTLE FUSE사에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해 외화획득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전자제품, 휴대폰, 마이크로휴즈, 홀더(휴즈 케이스) 등 프라스틱 사출과 우수한 금형제작에 특화된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대영정밀화학(포천시 내촌면 진곡리 224-1 대표: 유재용). 대영정밀화학은 30년 넘는 노하우와 정교한 기술력으로 동종업계에서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품목도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알토란같은 기업이다. 입구에 들어서서 순간 깔끔한 느낌이 절로 들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작업능력 향상 해외유명업체로 생산량의 절반이상 수출

며 각 파트별 자동화된 생산설비시스템은 제품 생산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 내실있는 기업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쾌적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있다. 유 대표가 금형, 사출 업계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선친의 영향력이다.

일제치하때 선친께서는 일본으로 건너가 금형 제작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 온 것이 계기가 되었다. 한 예로 그 당시의 나무를 이용해 만든 침입이 유행하고 있는 시기인데 선친께서 처음으로 프라스틱 빗을 만들어 국내에 보급시킨 장본인이라고 한다.

유 대표는 선친께서 운영하던 공장에서 자연스럽게 금형제작과 사출을 어깨너머로 접하게 된 것이 평생직업이 되었다고 한다. 선친의 대를 이은 유 대표는 남다른 열정과 신념으로 대영정밀화학을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현재 대영정밀화학은 사출기 6대 와 선반, 밀링, 방전기, 성형 연삭기(연마기) 등의 보유장비와 크레인 설치

그리고 30년 가까이 제품과 인맥으로 맺어진 10여 개 협력업체의 주문제작으로 생산시스템을 풀 가동시키고 있다. 유 대표는 "대영정밀공업의 근무시간은 내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야간 일도 마다하지 않고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짧게 느껴진다"며 "앞으로 금형개발부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곧 출시를 앞두고 있는 'NC 고속 가공기'가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NC 고속 가공기'는 가공속도가 매우 빠르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거래처와 고객들에게 시간절약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하는 미래형 가공기로 고성능을 자랑하는 제품이다. 대영정밀화학은 체계화된 철저한 관리, 탁월한 기술력, 우수한 품질생산으로 고객이 믿고 찾는 제품, 어느 업체에 뒤지질 않는 가격으로 미래형 기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 031)634-3305~6, 016)218-1230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대영정밀화학은 30년 넘는 노하우와 정교한 기술력으로 동종업계에서 다루기 힘든 까다로운 품목도 고객의 입장에서 제품을 제작하고 있는 알토란같은 기업이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이도니스 호텔에서 세계 15개국 150개 업체가 참가하는 포천국제무역상담회 개최했다.

포천종합무역(POTRA) 설립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 150여 업체 참여

포천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포천시 신북면 (주)아도니스 호텔 에서 세계 15개국 40여명의 우수한 바이어들과 포천지역 150개 기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5 포천국제무역상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북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기업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무역상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0개 참가업체 가운데 65개사는 별도의 상품전시 부스까지 마련해 자사제품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포천시는 이번 상담회를 통해 관내 기업체의 수출 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물론, 구체적으로 1억 달러 이상의 무역거래 및 투자유치와 기술제휴, 공동마케팅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상담회에서 박운국 포천시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판로개척을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포천종합무역(POTRA) 설립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박운국 시장은 "대한민국에 KOTRA가 있다면 포천에는 POTRA가 있게 될 것"이라며 "이를 내실 있게 육성해 지역 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올해 처음 시작한 '국제무역상담회'를 매년 정례화해 포천 및 인근지역 기업체와 국내외 바이어들 간의 네트워크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국제무역엑스포 개최와 국제전시장 건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에서 이룬 채란인 화합의 한마당"

제10회 전국채란인대회 2일간 개최

(사)대한양계협회 포천채란지부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반월아트홀 소극장과, 한화콘도에서 채란인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전국채란인대회를 개최했다.

양계업 등록 조기 추진과 전국채란인이 분회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채란인 권익 보호 도모를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는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가 주최하고 (사)대한양계협회 포천채란지부가 주관했다.

1일차는 박운국 포천시장은, 홍성훈 포천시의회 의장 등 포천시 관계자와 이재용 농림부 축산경영과장, 송창선 건국대학교 교수, 이해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최홍근 한국계란유통연합회장, 김선용 채란분과 위원장, 오세을 (사)대한양계협회 포천지부장 및 전국채란인, 협력업체 등 관계자 400여명이 참석한 개회식과 >정부의 양계산업 정책방향 및 양계업 등록제 조기추진 방안(조병남 농림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닭누모바이어스(APV) 감염증의 원인과 대책(송창선 건국대학교 수의학대학 교수) >환경친화적인 양계산업 구축의 필요성(이상호 산골농장 대표) >역사인식과 의식의 변화(이해일 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등의 세미나로 반월아트홀에서 진행된 후 한화콘도에서 이동 채란인의 발흥사가 이어졌다.

2일차는 채란인의 단합을 위한 등산과 김선용 채란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채란산업 발전방안 및 현



제10회 전국채란인대회 지난 5, 6일 양일간 반월아트홀 소극장과, 한화콘도에서 개최되고 있다.

안문제를 토론했다.

개회식에서 최준구 (사)대한양계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채란업계는 조류 인플루엔자 등 위험요소가 내재된 가운데 질병에 대한 대응능력을 필요하다"며 "높은 소비자의 구매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질별, 위생, 신선도 등의 관리를 철저히 실시, 양계산업의 부흥을 지켜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오세을 (사)대한양계협회 포천지부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 채란인들이 하나되는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대한양계협회는 1962년 12월 (사)한국가금협회로 창립되었고, 1973년 (사)한국가금협회, 한국부화협회, 한국조생추경협회와 통합돼 (사)대한양계협회로 설립됐다.

또한 현재 1천500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6개 도지회, 15개 산관계지부, 18개계지부로 조직돼 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라!  
토지나 건물의 양도도 인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투기 거액이나 단기양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 2005년부터는 매년 5월말까지 고시하며('04년까지는 매년 6월말고시), 고시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  
- 일반건물 기준시가 : 매년 12월 말에 고시하며, 다음해 1월 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지금까지의 고시내용을 보면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기준시가를 낮추어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후에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고시하기 전인 5월초에 주민들에게 열람기회를 주고 있어 새로 고시될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시일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국제청 공동주택의 기준시기도 고시하기 전에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031-870-4252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6

- 공동주택 기준시가 : 1998년부터 매년 7월 1일 고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시(투기발생 시 고시 고시 등)하고 있다. 2004년에는 4월 30일에 고시하였으며, 고시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한 것으로 고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고시일을 전후하여 토지나 건물에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산업안전사고 예방

터널상부 부석확인 작업 중 암반낙하



재해발생상황도

개발(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발파 후 터널 천단부의 부석 확인 작업 중 이완된 암반이 낙하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복부 등에 떨어져 사망한 재해가 발생했다.

재해발생원인으로는 터널 굴착작업 시 낙반, 출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질, 지층상태 등을 조사하여 하나 미시사와 터널 등의 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석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미조치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널 굴착 작업시 낙반, 출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질, 지층상태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기록 > 보존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질, 지층상태 확인 및 조사결과 기록 > 보존을 철저히 하는 것과 터널 등의 건설작업에 있어서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부석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031-826-6091)